



들어가기



교육목표

- 1 '노인'과 '인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2 노인의 현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3 노인학대의 현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4 코로나19가 노인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5 인식의 전환: 연령주의 타파의 영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6 인식의 전환: 권리주체로서의 노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교육내용

- 1차시 '노인'과 '인권'에 관한 물음
- 2차시 노인의 그늘진 삶의 단면과 한국사회의 부끄러운 실상
- 3차시 노인학대
- 4차시 코로나19가 노인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
- 5차시 인식의 전환:연령주의 타파
- 6차시 인식의 전환: 권리주체로서의 노인



용어해설

※ 용어설명은 인권교육 기본용어의 해설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2020)



노인인권

노인인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규정은 없으나, 좁은 의미로는 노인이 학대받지 않을 권리로부터, 넓은 의미로는 연령차별 없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권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노인인권종합보고서』(2018)에서는 노인 인권을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노후의 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로 정의했다.

인권교육 기본용어(국가인권위원회, 2020), 256쪽



행복추구권

행복추구권의 보호대상은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포괄적인 자유권으로 해석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판시했다.

인권교육 기본용어(국가인권위원회, 2020), 28쪽



학습하기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이 교재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사이버 인권교육으로 제공되는 '행복하고 존엄한 노년의 삶 (노인인권)'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모든 연령에게 유용합니다. 교육센터의 영상 콘텐츠와 함께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시 '노인'과 '인권'에 관한 물음



- '노인'과 '인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해보기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들은 광범위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며, 전 세계적으로나 개별 국가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영향을 끼치며, 앞으로 훨씬 더 큰 영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도 빠르게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사회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고령화는 우리 모두의 기대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노년의 시기에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와 경제적 빈곤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노인이 많아진다는 사실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삶과 노화하여 죽음에 이르는 여정은 우리 모두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노인은 누구인가요?

'노인'과 '인권'에 관한 현안을 마주할 때마다 떠오르는 물음입니다.



노인의 정의

여러분들은 노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적 의미로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의미하지만 [노인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 제1항에서 볼 수 있듯이 노인에 대한 명확한 연령기준은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제1항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다만,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 관련 범죄, 노인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등 개별 조항에서 학대피해노인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법령 및 제도상 노인 연령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연령기준은 대부분 65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2 제5항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노인의 정의

한편, 대법원은 2019년에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1989년에 55세에서 60세로 올린 지 30년 만에,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은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노인'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65세가 가장 통상적인 정년 연령이기 때문이며, 정년은 점차 늦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이 존경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상기할 때, 우리 사회에서 노년의 삶이 이와 같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초고령사회로의 이행

현재 우리 사회는 총인구 규모의 감소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초저출생, 그리고 초고령사회로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 2017년에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출생아 수 26만 526명에 비하여 사망자 수 31만 7,680명으로, 사망자가 출생아 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인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2020년부터 시작된 이후,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인세대의 사회적 위험

이러한 실정에 더해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재난 상황 속에서, 노인들에게 사회적 위험이 더욱 증대하고 있는데요. 노령에 수반되는 신체적, 경제적 및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노인이 인권을 향유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코로나19 재난 확산과 장기화로 인하여, 많은 노인들이 건강과 일상적 삶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노인들의 사회적 격리와 외로움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돌봄 공백 및 코로나 블루 등으로 인하여 취약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회적 배제는 노인들이 장기요양기관이나 가정내 학대 받을 가능성을 커지게 하는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노인세대의 사회적 위험



이처럼 우리 사회는 기존의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에 더하여 인구고령화,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해 사회적 위험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노후 빈곤과 노인학대, 연령 차별, 세대 간 갈등 그리고 다양한 인권 침해 등 노인을 둘러싼 위기 상황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노화하는 것, 노인이 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인생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노화, 노년에 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노인세대가 사회에, 청년들에게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라는 인식과 함께, 심지어 노인 혐오와 같은 새로운 인권침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유엔 사무총장은 노인에게 특별히 초점을 맞춘 국제인권조약이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노인은 전 세계 도처에서 빈곤과 부적절한 생활 여건, 연령차별, 폭력·학대 및 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에 상시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수많은 노인들이 무주택, 영양실조, 돌봄 받지 못하는 만성질환, 깨끗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 결여, 지불할 수 없는 의약품과 치료비, 소득불안정과 같은 부적절한 생활 여건을 매일 겪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심각한 인권 문제로 제시하였습니다.



노인인권의 중요성

노인의 인권은 앞서 인용한 보고서와 여러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인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를 이유로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인권 침해의 문제에 노출되는 노인의 수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인권 문제가 현대사회에서 폭력·학대, 연령차별과 소외, 사회참여 배제와 같은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일생주기에서 노년기를 살아가기 마련이므로, 노년기 인권, 노인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요한 인권 현안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인 인권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통으로 직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인권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더 알아보기

존엄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학습활동



- 교육내용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학습자 활동입니다.

Q1

노인을 정의함에 있어 단순히 '나이를 들어가는 사람' 으로만 정의할 수 있을까요?

Q2

현대에 와서 노인인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토론해봅시다.

2차시 노인의 그늘진 삶의 단면과 한국사회의 부끄러운 실상

- 노인의 현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해보기

[가난의 문법]이라는 책에서 한 어르신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떻게든 살아야 했다 ... 그래도 살아야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책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그녀의 노력은 언제 끝나게 되는 걸까. 이 질문 앞에 설 때마다 아득한 기분이 든다”라고 끝맺습니다. 이 책 속에서는 안타까운 노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노인의 삶, 노년기의 그늘진 실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사회 노인 빈곤율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66세 이상 은퇴연령층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18세에서 65세 이하 상대적 빈곤율이 11.1%인 것에 비하여 심각한 상황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듯 한국사회에서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통계는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노인 빈곤



한국사회에서는 대개 50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약 20여 년 동안 주변부 노동시장에서 잔류하면서 구직과 실업을 반복하다가 70세를 넘겨서야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질 은퇴연령이나 건강수명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노동에서 자유롭고 건강하게 보내는 기간은 짧고,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은 수준이며,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는 증가 추세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사회에서 노인은 빈곤 문제 등으로 인하여 노년에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일평생 가장 오랜 기간을 일하지만 노인 빈곤율은 가장 높는데요.

특히, 여성노인은 '노인', '여성', '빈곤'이라는 삼중의 사회적 배제와 성별노동분리 규범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노후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 노인은 가족의 빈곤으로 만성적인 빈곤에 처하거나, 노년기 이후에 사별이나 질병 등 생애 특정 사건들로 인하여 만성적 빈곤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살

노인빈곤과 더불어서 한국사회에서 노인의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증가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022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202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41.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또한, 한국사회는 도로를 횡단하다가 발생한 보행사망자 중에서 노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행사망자 중 노인 비율이 57.5%나 되며, 이는 OECD 회원국과의 비교에서도 2020년 이전 10여 년 동안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는 존엄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향유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치명률이 가장 높은 인구집단은 고령의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의 빈곤율, 자살률,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도 한국사회의 노인입니다.



인권의 눈과 감수성

최근 우리 사회는 삶의 질 '웰빙'과 더불어 죽음의 질 '웰다잉'에 대하여 관심을 갖습니다.

이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죽음이 가시화되는 시기인 노년기 사회 구성원의 절대적인 수가 증가하면서, 또한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생애말기 일정 기간 동안 죽음을 가시적으로 인식하며 생활하다보니, 웰다잉이 구현되어야만 진정한 삶의 질 확보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정경희 등, 2019).

국내에서 죽음과 관련한 논의는 997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가족의 요청으로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환자의 퇴원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 방조죄로 처벌한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8년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의 가족이 연명의료 치료장치 제거를 요구하였으나 의료진이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연명치료 중단판결이 선고된 '김할머니 사건'이 큰 전환점이 되어 죽음의 결정을 둘러싼 환자의 인권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죽음의 질이라고 하면, 이는 품위 있는 죽음과 깊이 관련되고, 이렇듯 품위 있는 죽음이라야 존엄한 죽음, 존중받는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알아보기

통계 속 숫자가 아닌, 인권의 눈과 감수성으로 사람을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습활동



- 교육내용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학습자 활동입니다.

Q1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인의 빈곤에 관하여 이야기해봅시다.

Q2

웰빙과 마찬가지로 새로 떠오르는 개념인 웰다잉에 대하여 각자의 입장에서 논의해봅시다.

3차시 노인학대



- 노인학대의 현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해보기

한국사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2005년부터 집계한 이래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가정에서 학대와 방임을 감내하는 노인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의 학대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학대피해노인의 상당수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치매노인 이거나 신체적 의존도가 높아 상시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입니다.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에 발표하는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 2,674 건이던 노인학대 사례는 2020년에 6,259건, 2021년에 6,774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사회는 2025년에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인의 수가 많아지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같이 증가할 것이고, 오랜 기간의 돌봄은 배우자나 아들 등 노인을 돌보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자칫 학대나 방임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므로, 인권의 눈과 감수성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학대에 관한 정의

여러분들은 노인학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행법상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을 말하며, 최근 디지털화되는 환경에 적응이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 등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경제적 학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려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530, 2022.5.9.)이 발의되어 있기도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누구도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을 학대하여서는 안 된다는 금지규정이 같은 법 제39조의9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그러나 가정, 요양시설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노인학대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현황

유엔(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INPEA)는 2006년에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하였는데요.

우리나라도 2015년에 이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하여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년 노인학대 예방의 날에 매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하는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 2,674건이던 '노인학대 사례'가 2020년에 6,259건(노인학대 신고 건수 16,97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기준으로 6,774건(노인학대 신고 건수 19,391건) 발생하였습니다. 모든 학대 사례의 통계 수치 이면에는 노인 한 분 한 분의 큰 고통과 신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외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와 방임 등을 말 없이 감내하고 있는 노인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듯 한국사회에서 노인들 대상으로 한 학대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학대 건수 이면에는 가정에서 학대와 방임을 감내하는 노인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노인요양시설 등에서의 학대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데 학대피해노인 상당수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치매노인이거나 신체적 의존도가 높아 상시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입니다.



인권적 접근의 필요성

한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실상에 대해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네 번째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에서 노인학대 근본 원인 파악 및 대처를 권고한 바 있는데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인 노인인권 독립전문가는 제75차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팬데믹 기간에 명백하게 드러났듯이, 노인은 요양원과 가정에서 학대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바,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인권침해라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폭력과 학대 및 방임에 노출된 학대피해노인을 위해 필수적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증진행동전략](2012~2025)에서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를 성과목표의 하나로 수립하였고,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한 [차기 정부에 제시하는 주요 인권과제](2022. 3.)에는 ‘노인이 직면하는 인권 현안에 대한 대응’을 담았으며,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2022. 7.) 인권 NAP 100개 핵심과제의 하나로, ‘폭력 및 학대로부터 노인의 인권 보호’를 노인인권 과제들 중 첫 번째로 제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국제인권규범 사회권규약 및 일반논평에서 제시하는 인간존엄성과 기본적인 인권 보호에 관한 국가 의무를 상기할 때, #1 일상생활에서 돌봄을 받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임하는 등의 학대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면, 이는 시급히 개선해야만 하는 인권 과제입니다.



학대피해노인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노인학대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노인학대의 유형, 장소,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학대사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고르게 확대 설치하여, 학대피해 노인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리 사회가 주변에서 학대로 신음하는 노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더 알아보기

학대피해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학습활동



- 교육내용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학습자 활동입니다.

Q1

학대피해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Q2

노인 학대에 대한 인권적 접근법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논의해봅시다.

4차시 | 코로나19가 노인의 인권 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가 노인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해보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차별적으로 나타나듯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장 많은 사망자는 다른 아닌 노인입니다.

코로나19 위협은 노인이 가진 취약성을 선명하게 드러냄과 동시에 노인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노인 또한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은 노인이 갖는 동등한 인권 향유에 뚜렷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정부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감염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소외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고립되거나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코로나19 현황



우리는 코로나19 위험 속에서 힘겨운 날들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생명을 잃었고 연일 발표되는 확진자와 사망자 수, 치명률이라는 숫자 속에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삶이 가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진자가 되어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가족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생명의 위험에 처하였지만, 왜 조심하지 않았냐는 비난의 무게까지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돌봄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환경에서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곁에는 요양보호사와 보건복지 종사자의 힘든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의료 조치와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다수가 밀집해서 생활하는 구급시설 수용자에 대한 감염 예방과 적절한 의료조치도 시급하고, 장애인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심리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시설에서는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치료하고 돌볼 인력도 부족해졌습니다. 특히, 기존에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노인인권을 위협하는 코로나19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는 존엄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향유하지 못하는 노인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치명률이 가장 높은 인구집단은 고령의 노인이었습니다.

유엔 [코로나19와 노인인권] 보고서(2020. 5.)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노인의 생명과 건강, 행복, 노년의 삶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우려한 바 있는데요. 유엔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에서 노인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들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감염병 퇴치 과정에서 노인의 인권 문제도 함께 해결함으로써 코로나19의 위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도 우리의 일상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쳐, 생명권, 건강권,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식량과 물에 대한 권리 등 인권 전반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여야 하는 부분은 그 피해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정도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특히 빈곤한 노인을 더 절박한 삶의 위기에 놓이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기존의 규범적 체제에 결함이 존재하며 노인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알아보기

공장은 멈추어도 돌봄은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필수노동으로서의 돌봄노동. 우리 사회에서 좋은 돌봄은 어떤 모습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학습활동



- 교육내용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학습자 활동입니다.

Q1

필수노동으로서의 돌봄노동. 우리 사회에서 좋은 돌봄은 어떤 모습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5차시

인식의 전환 : 연령주의 타파



- 인식의 전환 : 연령주의 타파의 영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해보기

나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장 먼저 인지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노인', '노령'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한 개인의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언제 '노년'에 진입하게 되는지를 결정짓는 고정되고 객관적인 생물학적 또는 연대기적 요소는 없습니다. 이는 노인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적 가치와 관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와 나이듦에 대해 우리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누리는 삶과 자유가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연령주의는 나이가 타인과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불이익과 부당함을 초래하며 세대 간의 연대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나뉘는데 이용될 때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연령주의는 생애에 걸쳐 다른 형태를 띠니다. 예를 들어, 10대는 정치 운동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조롱받을 수 있고, 18세는 경쟁력 있는 체조 선수가 되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일 수 있으며, 노인과 젊은 사람 모두 나이를 이유로 일자리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이듦

나이듦(Ageing)은 노화되어가는 과정이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포괄하는 시간에 따른 변화의 축적을 나타냅니다.

나이듦을 구성하고 영향을 미치는 변화는 복잡하며 생물학적 수준에서 나이듦은 세포의 점진적인 손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손상은 많은 질병에 대한 위험 증가, 그리고 개인 역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나이듦은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나이에 근거한 차별(연령주의 Ageism)이 만연하고, 다른 형태의 차별을 가중시키며, 모든 측면에서 노인의 사회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연령주의

연령주의는 연령에 따라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갖는 고정관념, 편견 및 차별을 의미하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편견'(Prejudice)은 특정 사회 집단에 속한 개인을 향한 정서적 반응 또는 감정입니다. 연령주의의 경우, 편견은 그들이 실제로 그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연령 집단에 속한다고 인식되는 개인들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고정관념'(Stereotypes)은 사회집단 구성원의 특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 믿음, 기대를 저장하는 인지 구조인데요. 연령주의의 경우, 연령 고정관념은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대해 추론하고 그들을 대하는 행동을 가이드 하는데 사용됩니다.



연령주의의 부정적 영향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인 노인인권 독립전문가는 “연령주의가 의료, 장기요양, 고용 및 은퇴, 사회적 배제 등 노인의 삶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노인을 동일 집단으로 간주함으로써 연령주의적 태도와 관행이 노인의 다양성을 반영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연령주의는 노인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노인이 여러 인권, 즉 생명권, 건강권, 적절한 생활수준에의 권리, 노동권, 자율과 독립의 권리, 개인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및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을 향유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경제와 사회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과 존엄성을 훼손하며 사람의 인권과 그들이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연령주의를 넘어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고 존엄하며, 이 가치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훼손되거나 폄하되어서는 안 될 것이나, 아직도 수많은 노인들은 빈곤과 자살, 학대, 차별, 혐오 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주의는 노인 혐오와 노인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을 '시혜와 복지의 대상'으로 여겼던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 존엄성 및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인권의 눈과 감수성으로 '권리를 가진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권은 나이, 국적, 인종, 민족, 언어, 성별, 성적 취향, 능력에 상관없이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누릴 자격이 있는 권리를 말하며, 내재된 권리가 존중될 때, 사람들은 차별 없이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사람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연령'에 대한 오랜 가정을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사회적, 법적, 정책적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리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학습활동



- 교육내용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학습자 활동입니다.

Q1

연령주의와 노인에 대한 혐오 차별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6차시 인식의 전환 : 권리주체로서의 노인



- 인식의 전환 : 권리주체로서의 노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해보기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고 존엄하며, 이 가치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훼손되거나 폄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노인들은 빈곤과 자살, 학대, 차별, 혐오 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주의는 노인 혐오와 노인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노인의 인권상황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노인은 폭력과 학대, 방임, 주거, 일할 권리 평등 및 비차별, 교육 훈련, 장기요양, 완화의료, 평생학습, 참여, 접근성 등 인권 향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노인과 기저질환을 가진 노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높은 치명률을 보이며 기존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노인의 존엄하고 행복한 일상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은 권리의 주체로서의 노인이 목소리를 내고, 이를 제반 정책에 반영하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부터가 그 시작일 것입니다.



노인인권 실상

노인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몇몇 조약은 노인과 특별히 관련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노년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권에 대한 향유와 관련하여 노인들이 직면하는 도전들, 즉 폭력과 학대의 예방과 그로부터의 보호, 사회적 보호, 주거와 식량, 건강 지원, 장기요양과 완화의료와 같은 분야에서 직면하는 난제들 유엔 인권조약에서 '노인'이 언급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허용 불가한 차별의 사유로 노령을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도 없으며,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서 차별금지 사유의 표준 목록은 연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입장이나 여타의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이나 여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동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유사한 문구가 사회권 규약과 자유권 규약, 그리고 후속 인권조약에도 담겨 있습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비록 연령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사회권규약 제2조 (2)항 하에서 연령이 차별금지 사유인지에 대해 검토하면서 "이러한 누락이 의도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아마도 이러한 규범이 채택되었을 때는 인구 고령화의 문제가 현재와 같이 명백하거나 긴급하지 않았었다는 사실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노인인권 실상

한편, 국제인권메커니즘이 노인인권 의제를 다루어 온 주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노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에 고령화 실무그룹이 설립되었습니다. 고령화 실무그룹은 유엔의 인권 의제에서 노인인권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높였고, 많은 국가가 기존의 인권 메커니즘이 이러한 문제에 보다 광범위하게 관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유엔 고령화실무그룹은 201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노인의 권리 항목에 관하여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평등과 비차별, 자율성과 독립, 폭력과 학대 및 방임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장기요양과 완화의료, 사회보호와 사회보장, 교육, 훈련, 평생학습에 대한 권리, 사법접근권, 일할 권리와 노동시장에 접근할 권리, 경제적 보장,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노인의 기여, 건강권 등입니다.



노인인권 보호의 간극

이렇듯 노인인권문제의 한계는 핵심 인권조약 및 관행에서 상대적으로 잘 보이지 않고, 새로운 이슈들은 기존의 인권 규범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 노인인권과 노령에 근거한 차별에 관한 일관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관여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노인인권 독립전문가도 “노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된 국제법적 장치의 부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당한 실질적 함의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노인인권 독립전문가



현재의 장치들은 고령화 문제를 충분히 가시화시키지 못하며, 이는 대중들의 교육을 불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노인의 효과적인 통합을 저해한다.



노인과 관련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



인권조약 감시 절차는 일반적으로 노인을 간과하고 있다.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

모든 사람은 노화됨에 따라 돌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입니다. 노인의 존엄성은 기본적 인권과 권리 향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과 조치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인권의 눈과 감수성으로 노인을 바라보고, 모든 노인이 고령 친화적인 환경에서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규범적 기준이자 약속인 유엔 노인권리협약이 성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권리협약을 성안하는 과정에서는 인권시민사회, 국가인권기구, 노인 당사자를 포함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와 고령화실무그룹 업무에 적극적이고 의미 있게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노인인권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인의 인권 현안을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리 주체로서의 노인'이 존엄하고 행복한 노년의 일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인인권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노인 인권에 관한 주요 현안을 공론화하고 인권에 기반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유엔 노인권리협약 성안 지지를 독려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등 국가인권기구로서 맡은 바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합니다.



더 알아보기

첫 번째 차시에서 존엄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물음을 제기하였는데요.

노인의 존엄한 삶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방안과 노력들 중에서도, 우리 사회가 노인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고,

권리 주체로서 노인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노인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효적 방안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습활동



- 교육내용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학습자 활동입니다.

Q1

권리주체로서의 노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사회에서 마련해야하는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학습정리

1차시 '노인'과 '인권'에 관한 물음

- 인구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노인들의 사회적 격리와 외로움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노인학대 등 노인을 둘러싼 문제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 노인들은 빈곤, 연령차별, 폭력, 서비스 부족 등의 인권 문제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인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차시 노인의 그늘진 삶의 단면과 한국사회의 부끄러운 실상

- 한국사회에서 노인은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여성노인은 노후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특히 취약합니다.
- 일을 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는데, 이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한국사회에서 노인의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증가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차시 노인학대

- 유엔과 INPEA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6월 15일을 정하였고, 한국은 이를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노인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성적 폭력 및 방임을 포함하며, 디지털 시대에는 경제적 학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 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학대행위자 교육과 상담 강화,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전용 쉼터 설치 등이 필요합니다.



학습정리

4차시 코로나19가 노인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들은 행복한 삶을 못하고 높은 사망률과 고립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취약계층은 의료와 돌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코로나19와 기후위기는 인권에 큰 위협을 주며, 특히 빈곤한 노인과 취약계층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5차시 인식의 전환 : 연령주의 타파

- 나이는 사회적 개념이며 나이들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 연령주의는 연령에 따른 편견과 차별로 모든 연령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 연령주의는 노인의 인권을 훼손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 존중과 노인의 주체적 취급이 필요합니다.

6차시 인식의 전환 : 권리주체로서의 노인

- 노인은 인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일부 인권조약은 노인과 관련된 권리를 보장합니다.
- 현재의 인권 메커니즘은 노인과 노령에 대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노인의 취약성이 더해졌으며, 새로운 국제법적 규범과 기존의 규범을 강화해야 합니다.

